

익명의 그리스도인, 2부 순서 인사말

예수님과 첫 사랑에 빠져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동안 세상을 외지하며 살던 모습이 부끄러워

교회 지하실 마루바닥을 뒹굴며 회개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어려운 시절,

예배당을 짓기 위해 과분한 희생을 하면서도

백돌 한 장 한 장 올라가는 것만으로 감사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예배당을 완공하는 날,

이제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린 것 같아서 감동하여

새 예배당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행복했던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로부터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은

- 부모나 형제 대부분이 교회의 중직자인데 ⇨ 홀로 믿지 않는 사람

-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중단하고 ⇨ 예배만 출석하거나,

다른 교회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 목사와 성도에게 상처받고 ⇨ 교회를 떠난 사람

-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 방황하는 사람

-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 ⇨ 공부하고 싶은 사람

그분들을 위해 우리 예인교회가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2부 순서로는 지역별, 직분별 혹은 연령별 모임을 통해 그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대안도 함께 찾고, 서로를 위해 위로하며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앞에 놓인 다과도 함께 나누시며 약 1시간 정도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인교회 장로 고길곤 배상

안녕하세요.

부천 예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성규 목사입니다.

이번 제3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에 강의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인교회는 6년 전, 교회와 목회자(이전 교회의 담임목회자의 여자 성도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아픔을 겪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자 고민하던 중 교회개혁운동을 하는 분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다운 교회의 참모습을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교회의 문제로 아픔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를 생각하다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알리는 동시에, 이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들이 있음을 알리고자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역시, 교회 문제로 아픔을 겪는 분들과, 교회다운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교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리고, 함께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08.2.24(주) 오후3:30
- 장소 : 복사골문화센터 514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
- 프로그램 : 총 예상 소요시간 약 3시간
 - 찬양(10분) - 선우주현 전도사
 - 대표기도(5분) - 이영모 장로(예인교회 운영위원장)
 - 강의1(70분) - 이만열 장로(전 국사편찬위원장)
 - “왜 교회개혁이 필요한가?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
 -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본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 쉬는 시간(5분) - 간식
 - 특송(10분) - 인천기독남성합창단(2곡)
 - 강의2(60분) - 이의용 장로(교회문화 연구소장)
 - “교회 개혁을 위해 변화를 꿈꾸는 교회”
 - 오늘날 개혁을 꿈꾸는 움직임....
 - 질문 및 토의(10-20분) -
- 준비팀장 : 고길곤 장로(011-422-7883) / 길안내 해드립니다. 전화주세요.
- 예인교회 : 032)328-0692 // www.yein.org
- 첨부된 자료 : 전단, 제2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순서지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을 통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행사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보내드리겠습니다.

2008.2.12.
예인교회 정성규 목사 올림

첨부 자료

1. 2006년 제2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순서지
2. 2008년 제3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홍보 전단
3. 예인교회 소개
4. 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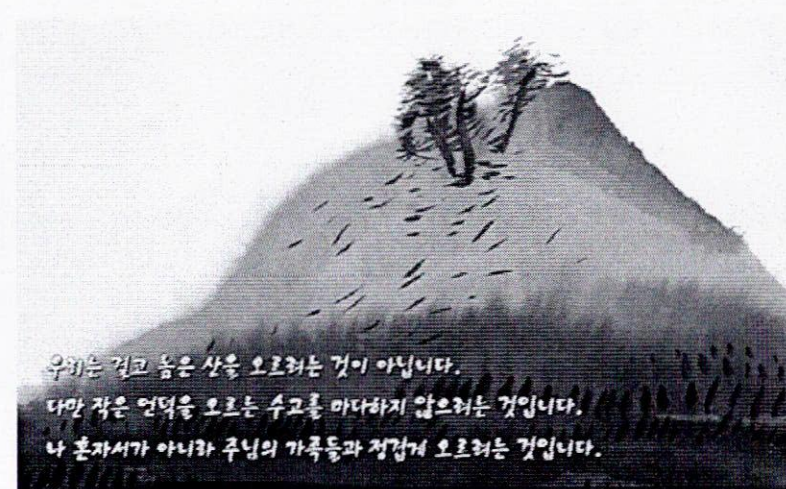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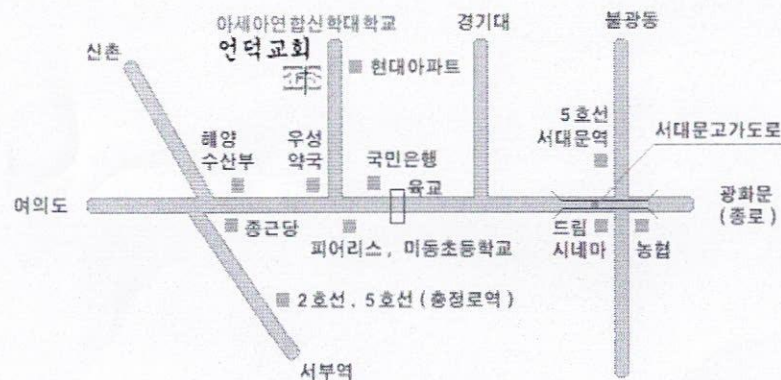
■ 교회 위치

• 예배처 및 연락처

- 예배처 : 아세아연합신학대 (서울 충정로) 1층 강당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187
- 전화번호 : 박득훈 목사 (H.P) 011-9932-9519 (TEL) 02-981-9519
이승중 장로 (H.P) 011-324-2098
신흥식 장로 (H.P) 017-258-9426

• 대중교통 안내

- 서대문역(5호선) : 1번출구 국민은행방면 295m (도보 약5분)
- 충정로역(2,5호선) : 8번출구 서울시건설안전본부 방면 415m (도보 약6분)
- 서울시내버스 : (충정로 중근당 또는 서울시건설안전본부 앞 하차)



■ 언덕교회는...

- 누구나 바라보고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교회
- 언덕교회의 이미지는 골고다 언덕과 고향의 언덕이 갖는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첫째,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의 수난의 현장이자 부활의 현장.

그곳은 슬픔과 걱정이 약속과 희망으로 바뀔 기적의 현장.

그 언덕을 바라보며 우리는 위로받으며 새 희망을 가집니다.

둘째, 고향의 언덕입니다.

고향의 언덕은 지친 삶에서 안식이 필요할 때 떠올리고 싶은 곳이며, 언제라도 돌아갈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반갑게 맞아주는 곳입니다.

■ 언덕교회의 정체성

언덕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 묻는 분이 많습니다. 언덕교회의 정체성은 교회규약과 선언문을 통하여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언덕교회의 정체성은 한 두 사람의 주장으로 확립되지 않으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기본적으로 언덕교회의 정체성은 교회의 운영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진화될 것입니다.

언덕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①우선 외부로 압축되어 표출되는 언덕교회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입니다. ‘건강’과 ‘일’은 뺄수 없는 관계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일해야 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이를 교회개혁과 연관지으면 개혁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역량을 갖추어야 개혁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혁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개혁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균형 있는 개혁교회’를 언덕교회의 정체성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언덕교회는 내부의 건강만이 아니라 외부의 건강도 아울러 챙기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② 이에 부가하여 언덕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바라고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빛이며, 소금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념적 방향에 있어서 언덕교회의 정체성은 ①복음주의, ②민주주의, ③개혁주의라는 세 가지 기조에 기반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적 노선에 있어서 성경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복음주의를 견지합니다. 이는 창립 초기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하고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는 신앙노선입니다.

둘째, 교회운영에 있어서 신본주의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이 같은 교회민주주의는 “인간의 죄성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고, 인간의 신성은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다”는 경구에서도 지지됩니다. 교회운영을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간의 관계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향함에 있어 갈등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협력적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일부 선각자에 의한 엘리트민주주의가 아니라 기독교신에 의한 시민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이때 기독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 참여의식(active)과 능력(informed)을 가진 균형 있는 시민 또는 교양시민을 의미합니다. 참여의식과 능력은 참여를 통하여 형성되므로 교회는 교회운영과정의 교인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셋째, 운동성향에 있어서 개혁주의를 지향합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를 돌아보아 개혁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언제나,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덕교회는 이러한 노력을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동시에 적용하려는 교회입니다.

■ 창립취지

언덕교회는 수많은 교회 중 또 하나의 교회가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언덕교회는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평신도가 깨어 건강하게 일구어 나가는 교회의 본이 되고자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목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연합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 목표 :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

언덕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덕교회는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라는 목표 아래, 다음 4가지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1.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
2. 성경에 기초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교회
3.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교회
4. 한국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 교회의 특징

1.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2.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사회봉사활동을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3. 정기적으로 다른 교회에 참석하는 흠어진 예배를 드립니다.
4. 교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모든 직분의 임기제를 시행합니다.
5. 교회운영에 관한 결정을 민주적으로 합니다.
6. 관리지출을 최소화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7.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8.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 교회를 운영합니다.
9. 한국교회개혁에 적극적 관심을 갖습니다.
10. 교회규약을 만들어 이를 실천합니다.



☺환영합니다

다딤돌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안으로는 진리를 배워 믿음을 실천하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에배(日) 오전10:40 지역사회교육회관 지하1층(8호선 몽촌토성역 2번 출구 옆)

수요모임(水) 저녁 8:00 살림방(송파구 방이동 178-3번지 202호 방이 사거리 부근)

*기도 소모임을 매주 화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기도요청을 받고 있습니다(담당: 이윤선).

*심방 요청은 예배부(부장: 홍준식)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동영상은 인터넷(www.didimer.net) [말씀과 예배]—[다딤돌 강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인성

사랑은 친절하고 따뜻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희락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해하는 것이다.

화평은 서로 용납하고, 판단하지 않으며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오래 참음은 사람들이 배우고 변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자비는 다른 사람들이 불평할 때에도 기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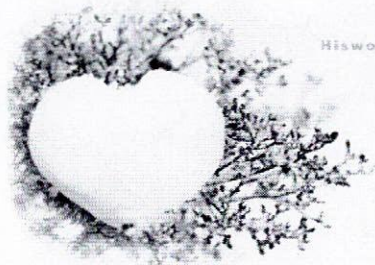
양선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공정하게 행하는 것이다.

충성은 일관성 있게 자신의 말을 지키는 것이다.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다.

절제는 다른 사람들이 약할 때에도 스스로를 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까다로운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교향곡」
윌리엄 J. 디엄 저



다딤돌교회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1-3 지역사회교육회관 내 ☎(02)6408-9101

오늘날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 남을만한 전무후무한 외적 성장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그 이면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준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무색케 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다딤돌교회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새 부대를 만드는 심정으로 기성 교회의 낡은 틀을 벗어 버리고 미려하나 한국 교회가 봉착한 현재의 위기상황에 그 대안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2008년 2월 셋째 주일

2008. 2. 13.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는 신앙공동체



창립 2004.11.27. www.didimer.net
예배처: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1-3 지역사회교육회관 내

다딤돌교회

다딤돌교회 사명선언문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며, 부흥을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와 막힌 담을 허무는 소통과 연대로써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널리 확장해 간다.

디디머의 7가지 정신

Disciple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Identity	자기 정체성 인식
Doer	행동하는 사람
Innovation	혁신
Membership	공동체 일원 의식
Evangelism	복음 전파
Ready	준비



<http://noseakim.new21.net>

주일에배순지

*표는 기립하여 주십시오.

성찬예배

*찬송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성서교독 “시편 15편” (안쪽 내용 참조)

찬송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공동기도 “공동기도문” (안쪽 내용 참조)

성경봉독 “마태복음 18:21-35” 이상호

말씀선포 윤선주 목사

“아버지께 기도 그와 같이 하십시오”

성만찬 다같이

봉헌기도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홍광표

*찬송 “너희는 먼저”

*축도 윤선주 목사

교회소식 담당자

교회 소식

1. 오늘은 성찬예배로 드립니다.
2. 예배 후 각 부서별 모임이 있습니다. 각 소속된 부서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3. 디디머칼리지가 오늘부터 개강합니다.

1단계 새가족반(4주)-오전 10시

2단계 성경적부모교실(12주)

- 예배 후 오리엔테이션

다음 주일 예배 담당

성경봉독	봉헌기도	2월 안내
2/24 임종길	홍준식	한진용(실외)
3/2 최윤정	황숙영	이행순(실내)
3/9 한진용	김현수	이행순(실내)
3/16 이주호	박형진	

디디머칼리지에서 작년에 진행되었던 <바른 예배 바른 신앙> 과목의 내용을 요약하여 주보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올해(2008)부터 성경에 입각한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내용과 순서를 바로잡아서 시행중입니다. 연재 글을 통해 디디머 여러분들이 성경에 입각한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 디디머교회 예배부

3과 예배의 기본 구조와 설교

한국교회의 예배는 대개 비슷하다. 목도 혹은 예배의 부름 등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마치는 형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한국교회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고착되어 있는데 실상은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들이 전수해 준 것(19세기 북미의 예배형식)이다.

예배는 다양한 형식으로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의 'Story'이어야 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의 집약이며 요약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배는 인간이 마음대로 형식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형식과 구조를 지닌다. 그것은 '말씀'(말씀예전)과 '성찬'(성찬예식)이다.

1. 예배의 구조

'말씀'과 '성찬'은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내려온 기독교 예배의 기본구조로서 변형되거나 유실될 수 없는 고유한 정통예식이다. 여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상징하는 '도입예식'과 예배를 마친 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하기위해 세상으로 보내지는 '파송예식'이 각각 앞과 뒤에 붙는 4중 구조가 됨으로써 보다 신학적으로 체계적인 모양을 갖추게 된다.

(1)예배의 4중 구조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인간들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적 신앙행위이기 때문에 인간 혹은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말씀'이나 '행동'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쌍방향적 유기적 행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공동체)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예배의 '응답적 구조'라고 한다.

예배의 기본구조는 각각 신학적, 신앙적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예배의 구성요소(기도, 찬양, 봉헌, 성경봉독, 설교 등등)와 그 위치(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예배 구성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교단이나 교회들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정해진 종교의식이나 절차가 되어선 안 되며, 무엇보다 예배공동체 전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신앙고백이 담겨 있어야 한다.

(2) 예배의 실천적 정의

예배의 실천적인(기능적인) 차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기독교의 예배란 하나님 말씀(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또한 성찬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배하는 공동체와의 온전한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나라'(천국, Kingdom of Heaven)란?

일반적으로 '하나님나라'라고 하면 사람들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게 될 영원한 분향을 떠올린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소망으로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나라가 뜻하는 바는 그것만이 아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가리키는 하나님나라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디스립'을 뜻한다. 곧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성취되고 실현된 상태'가 하나님나라인 것이다.

글/ 윤선주 목사

☞다음 주보에 "제3과 예배의 기본 구조와 설교"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성서 교독은 예배 회중 여러분의 원편과 오른편이 교대로 읽습니다.

성서교독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벅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꾀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멀리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변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시편 15:1-5)

공동기도문

형제 : 십자가로 가까이 이끄시옵소서

자매 :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이끄시옵소서

형제 : 크고도 넓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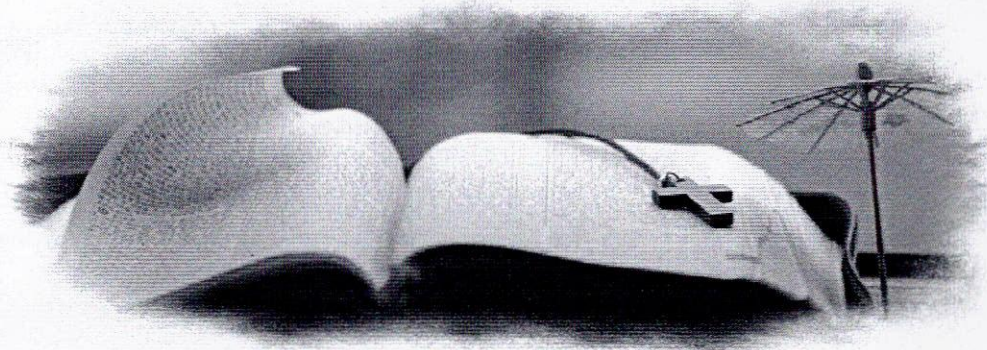
자매 : 대속해 주신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형제 :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일깨워 주소서

자매 :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합독 : 주여, 험한 세상 이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교회 위치

138-050 서울 송파구 방이동 41-3 지역사회교육회관 / 02)6408-9101

www.didimer.net (webmaster@didimer.net)

[찾아오시는 길]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삼거리 버거킹 뒤쪽

교통편 : 지하철 - 8호선 몽촌토성역 2, 3번 출구(도보 1분)

버스 - 올림픽공원 정류장(340, 3412, 3413)하차 (도보 3분)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는
신앙공동체



www.didimer.net 디딤돌교회

* 디딤돌교회의 SPIRIT(정신)

세상엔 거미줄처럼 얽힌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세상사와 인간사의 모든 일이 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길이 처음부터 있던 것은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를 개척한 선구자가 있었고, 앞서간 그 발자국을 따라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길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희망의 입입니다. 그 길을 따라 간 이들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희망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길 없음을 원망하고 낙심하기 보다는, 누군가 나를 대신해 길을 내주길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나서 새 길을 여는 첫 발자국을 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길을 마음에 그려봅니다. 길이 없는 곳, 길이 끊긴 곳, 그래서 사람들이 발길을 돌이켜야 했던 그 곳에, 우리 하나 하나가 디딤돌이 되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모습입니다.

디딤돌교회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 남을만한 전무후무한 외적 성장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그 이면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준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무색케 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디딤돌교회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새 부대를 만드는 심정으로 기성 교회의 낡은 틀을 벗어 버리고 미려하나마 한국 교회가 봉착한 현재의 위기상황에 그 대안적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 디딤돌교회 사명선언문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예수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며,
부흥을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와
막힌 담을 허무는 소통과 연대로써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널리 확장해간다



디딤돌의 7가지 정신

D isciple	예수그리스도의 제자
I dentify	자기정체성 인식
D oer	행동하는 사람
I nnovation	혁신
M embership	공동체 일원의식
E vangelism	복음 전파
R eady	준비

* 디딤돌교회의 비전

1.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28:19,20)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아 데리고 가는 동시에 삶의 전 영역을 통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신앙공동체가 된다.

2.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 소외된 계층을 섬기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이웃을 유익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신앙공동체가 된다.

3.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교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림과 구별되고 헌신된 예배자의 삶을 구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공동체가 된다.

4.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6,17)

→ 진리의 말씀인 성경 배우기에 늘 힘쓰며, 배운 것을 실천하여 믿음의 열매를 결실하는 신앙공동체가 된다.

5. 전인(全人)구원을 이루는 교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 1:2)

→ 영혼구원만이 아닌,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나누는 신앙공동체가 된다.

6.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교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엡 4:13)

→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믿음을 갖추는 성숙한 신앙공동체가 된다.

7.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교회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지라도』 (암 5:24)

→ 성별된 주의 백성들으로써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공동체가 된다.

8. 교회 일치에 앞장 서는 교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 17:21)

→ 생동감이 넘치고 늘 새로워지며 하나님 백성들 간의 연대와 일치를 위해 열린 자세로 모두 하나 되기를 희망하는 신앙공동체가 된다.